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TV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 덕분에 대충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물어볼 데도 없어서 마치 아무 것도 없는 사막에서 목표점을 찍고 가는 것처럼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유명 요리연구가에 의하면 자신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것을 떠나서 방향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할 때 요리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방향이 맞아’라는 확신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과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제가 되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예비 신학생 모임에도 나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구절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중 시기의 첫째 주일에 주님 세례 축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축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미움을 받는 자녀도 아니고, 벌을 받는 자녀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녀도 아니고, 당신의 욕심을 강요받는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시점은 수난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서도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명르(디아블) 신부
민포대(해군 2함대)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이사 42,1-4.6-7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특 시 복음 판호송

사도 10,34-38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특 음 영 성 제 송

루카 3,15-16.21-22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박경화 바오로



성인명: 박경화 바오로 (朴甫祿 Paul)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57-1827년

‘도향’이라는 관명(冠名)으로도 잘 알려진 박경화(朴甫祿) 바오로는, 1757년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33세 무렵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본디 그는 제법 재산이 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몸이었다고 한다. 1839년 대구에서 순교한 박사의 안드레아가 그의 아들이다.

박 바오로는 입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박해로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의 배교는 오히려 열심을 배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더 철저하게 신자의 본분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산중으로 이주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박 바오로는 주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열심히 읽고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덕행을 닦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었다. 60세가 지나서 박 바오로는 가족을 데리고 충청도 단양의 가마기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이곳에서 그는 1827년의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교우들을 안심시킨 뒤 경상도 상주의 명에목으로 이주하였으며, 4월 그믐에 교우들과 함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체포되었다.

상주로 끌려가는 동안 박 바오로는 기쁨에 넘쳐 “우리가 오늘 가는 길에 대해 천주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고, 다른 교우들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게다가 옥중에서는 늙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 먼저 교우들을 격려하거나 보살피 주었다. 상주 관장은 도저히 박 바오로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대구 감영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의 자식들도 굳게 신앙을 증언한 뒤에 모두 대구로 끌려갔는데, 장남인 박 안드레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되었다. 대구 감사는 연 3일 동안 박 바오로에게 혹형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자, 사형을 선고한 뒤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박 바오로는 새로 감사가 부임한 뒤 다시 옥에서 끌려 나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령에다가 여러 차례의 형벌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박경화 바오로는 평온한 기색으로 자신의 영혼을 천주께 드렸으니 그때가 1827년 11월 15일(음력 9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두 사나이



위에서
 아버지 보시기,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만난 두 사나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상화이야기

동방박사들의 경배



진발레 디 피브리노, 1423년 작
패널 위 템페라화, 203x282cm
우피지 갤러리, 이탈리아 피렌체

동방박사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동방박사는 예수님 앞에 왕관을 벗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경배드리고 있다. 아기 예수님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동방박사의 벗겨진 머리를 축복하듯이 만지고 계신다. 성모님은 고딕풍 인물답게 긴 팔과 다리를 한 여인으로 그려져 있으며, 성모님 뒤의 여인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귀한 선물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제 보석과 금박으로 장식된 이 그림은 마치 현실과 그림 속 가상 현실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마치 눈 앞에서 이 장면이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맨 오른쪽의 그림과 그림 장식의 경계만 보더라도 그림과 실제 기둥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 마치 기둥에 장식된 꽃그림 장식은 그림 밖으로 계속 자라날 것만 같다.



김은혜(셀리시넷)

그 옆에는 차레를 기다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이고, 맨 오른쪽 동방박사의 시종은 신발을 벗는 것을 돕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금장식은 실제 금장식이기도 하여 아마도 최초의 3D 그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 구 소 식

군중우협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주님 새레 축일: 국군중앙 하청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광성대(공군군수사)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13일(주일)

◆ 제12회 청소년 진례봉사회 겨울 캠프

때·곳: 1월 14일(월)~18일(금), 곤지암 리조트

“모든 이■ 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